동아여중, 찾아가는 매콤달콤 떡볶이 가게 운영

동아여자중학교(교장 오광섭)가 동아누리제(D-FESTA) 행사 일환으로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및 자비신행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매콤달콤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한 해의 교육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동아누리제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회장 서민주 학생은 "이번 행사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 좋은 추억이 됐다"고 밝혔으며 도계 스님은 "학생들과 함께 할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고 매우 보람되며 작은 따뜻함이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미건설, 전남대병원과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협약

우미건설이 지난 29일 전남대병원에서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과 정신 전남대병원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생활권 기반의 예방·건강관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미건설은 해당 서비스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내 새로운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건강관리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주거와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헬스케어 모델을 검토 중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 부임

박진성〈사진〉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박 원장은 1995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에 입사 후 서울지사 기획경영팀 적십자수품센터 소장, 본사 기획조정실 업무지원팀장, 서울적십자병원 원무팀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아왔다. 박 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박 원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활 속 헌혈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헌혈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월 '우리고장 위대한 대한인' 김점곤 육군 소장

광주지방보훈청 선정

광주지방보훈청은 '2026년도 우리고장 위대한 대한인' 1월의 인물로 6·25전쟁영웅 김점곤(사진·1923~2014) 육군 소장을 선정했다.

1923년 화순군 화순면에서 태어난 김점곤 소장은 6·25전쟁 발발 직후 전선에 투입돼 전쟁의 분수령이 된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연이은 패전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상황이었고, 다부동이 뚫릴 경우 대구와 부산마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김 소장은 당시 제1사단 12연대장으로서 무너질 듯한 방어선을 붙잡았다. 특히 그는 직접 특공대를 편성해 적 전차를 향해 돌진했고, 치열한 교전 끝에 전차 4대를 격파하며 전황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 반격은 국군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는 전환점이 됐고, 1950년 9월 25일 전면 반격으로 이어졌다.

이후 진군에 나선 제1사단은 10월 11일 38선을 돌파해 평양에 진입했으며, 김 소장이 이끈 12연대는 치열한 저항을 뚫고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쟁 초반 연전연패로 흔들렸던 국군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53년 그의 탁월한 지휘와 공훈을 기려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김 소장은 전쟁 이후에도 군에 헌신하며 1962년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한편 이번 선정은 광주지방보훈청이 추진하는 '2026년 우리고장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월 지역 출신 보훈 인물을 1명씩 선정해 그 공적을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 보훈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대 학생·대학원생 3명,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고수본

유민서

최혜지

전남대 소속 학생·대학원생 3명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 친환경 에너지 기술 연구, 지역 문화 기획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고수본(의학학과 석사과정), 유민서(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최혜지(음악학과 석사과정) 씨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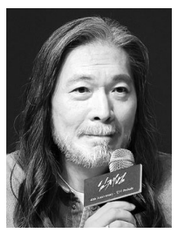
고 씨는 인공지능(AI) 기반 단백질 설계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했으며 유 씨는 광전기화학 질소 환원 반응 촉매 개발 연구와 관련해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최 씨는 광주 지역 청년 클래식 음악단체 '아르플래닛'을 창단해 대표로 활동하며 총 14회의 공연을 직접 기획·연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40주년 공연 끝으로 무대 떠난다"

임재범, 가요계 은퇴 선언



가수 임재범(62·사진)이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다.

4일 소속사 블루씨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재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진행하고 있는 임재범은 이번 전국투어를 끝으로 무대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재범은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은퇴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많은 시간, 참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번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무대를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재범은 지난해 11월 29일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산 등지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고 있다. 서울 공연은 오는 17~18일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다.

지난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으로 데뷔한 임재범은 거친 목소리를 내세워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여러 히트곡을 냈다. 그는 지난해 9월 신곡 '인사'를 발표하며 정규 8집을 발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임재범은 신곡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해도 저는 늘 (녹음 뒤) 미련이 남는다. 뒤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며 "50주년, 60주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	10 TV쇼 진품명품(재)	1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1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45 팬티히어로2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쌍둥이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네모세모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이맘때(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탑클래스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오늘부터, 인생 2막(재)
5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왕국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안녕! 틴틴팅클 30 첫 번째 남자(재)	00 SBS 오뉴스 20 SBS 뉴스특보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캐리와 친구들(재) 50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듣는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00 누난 내게 여자야	50 극한84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스모킹 건(재)		50 닥터 365
12	25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MBC 뉴스 25	00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
〈겨울이 오는 길, 카자흐스탄 알타이, 겨울 문턱에서〉
07:00 슈퍼윙스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20 자이언트 펭TV
09:40 PD로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한글용사 아이야(재)
17:00 페파 피그
17:10 메카 빌더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17:50 자이언트 펭TV(재)
18:10 EBS 뉴스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민국
19:50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
20:40 세계테마기행
〈덕후의 전쟁사전 영원한 로마 한니발이 문 앞에 와 있다〉
21:35 한국기행
〈다 이루어질지니 1부 일곱 부처님 품안에서〉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취미는 과학 여행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5일 (음 11월 17일 己卯)

☎ 010-9790-8237

子 48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60년생 특별한 방법이라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72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4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96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08년생 가까이 있는 이의 도움이 제일 실효적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9, 91

丑 37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도다. 49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61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3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85년생 검은 구름이 걷히고 있으니 곧 해가 떠오르리라. 97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73

寅 38년생 일단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익이니라. 50년생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임하라. 62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74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86년생 일상적인 구조나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98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6, 83

卯 39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51년생 시기에 적절한 조처를 해야 성과가 크다. 63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도다. 75년생 쉽지만은 않을 것이니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루자. 87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되 대세에 편승하라. 99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끈다. 행운의 숫자 : 11, 64

辰 40년생 불안 요소가 계속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52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4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애를 태울 것이다. 76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88년생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판국에 놓여 있다. 00년생 획일적이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12, 99

巳 41년생 자기 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53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77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89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쓸모가 있으리라. 01년생 표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1, 67

午 42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54년생 파다한 징후만 제대로 감지하더라도 충분히 면액할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8년생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제때 활용할 수 있다. 90년생 길사로 연결되며 발전된 양상을 띤다. 02년생 구우일모요, 천재일우의 호기이다. 행운의 숫자 : 22, 89

未 43년생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실행함이 유익하다. 55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67년생 겸손함과 겸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79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옳다. 91년생 차원을 달리하는 성대함이 보이니 잘 활용해 보자. 03년생 다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물어 보고 가자. 행운의 숫자 : 08, 66

申 44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56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68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80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92년생 길사가 겹치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바빠지게 될 것이다. 04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74

酉 45년생 방심하다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81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음이 나을 것이다. 93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05년생 소득이 별로 없다. 행운의 숫자 : 39, 69

戌 46년생 파생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되겠다. 58년생 조바심을 버려야만 성사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70년생 주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82년생 지리멸렬함을 청산하고 파격적인 진보를 보이겠다. 94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06년생 안개가 자욱한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02, 55

亥 47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서 확실히 해둬야 한다. 59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한번 잃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느니라. 83년생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95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07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9, 78